

부활 제5주일

'예수여, 나는 당신을 희망하며, 내가 선한 일에 계속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0-5-9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

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요한 14,1-1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에 그분은 우리를 데려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길은 그리스도 자신

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그리스도는 나보다 나의 행복에 더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을 그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경쟁가로 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자신을 주면, 하느님께서 내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으니고 생각하면 잘못한 사고입니다.

...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지만,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주님은 진리인데,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가?

모든 사람은 진리와 생명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진리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그분의 생각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 될 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의 삶과 성격의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합니다. 아마 우리는 주님과 같은 상황에 없지만, 그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에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행복했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분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있는 개인적인 태도입니다.

‘성령님, 복음의 저자시여, 내가 복음을 읽을 때,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봤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봤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봤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얼굴이며, 우리는 하느님의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기적이나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에 대한 확고한 기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체, 교회,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을 증가시킵니다.

농부는 과일을 얻을 희망으로 파종합니다. 선원이 다른 항구에 도착할 희망으로 배를 탑니다. 상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보는 대로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며, 그 일을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멀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모든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이나 소명이나 결혼생활에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매우 염려하는 사람은 희망이 부족하고, 하느님의 은혜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여, 나는 당신을 희망하며, 내가 선한 일에 계속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내를 주십시오. 내 믿음, 희망, 자선을 늘어나게 하십시오!

이낙희 신부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5weol-10il-buhwal-je5juil/> (2026-2-22)